

한우

제5대 한우협회장에
정호영씨
부회장에 임관빈·김남
배씨...감사엔 우영기·
송무찬씨



전국한우협회 제5대 회장에 정호영씨가 당선됐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월 21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 임원선거를 실시, 정호영씨를 회장에, 임관빈씨와 김남배씨를 부회장에, 우영기씨와 송무찬씨를 감사에 각각 선출했다.

이날 회장 선거는 정호영씨를 비롯해 조위필씨, 김영길씨, 박승술씨 등이 4파전을 벌일 끝에 정호영씨가 294표중 161표를 획득,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회장에 당선됐다.

정호영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기쁨보다 어깨가 무겁다. 출마후보 모두의 뜻을 모으고, 축산농가들의 뜻을 받들어 어려움에 처한 한우사업을 더욱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영 당선자는 그동안 한우협회 부산울산경남도지회장으로로서 한우산업 발전에 앞장서 왔다.

축산신문 이동일기자

양돈

“대한한돈협회로 불러주세요”
정총서 명칭변경과
올 사업계획 승인...정부
돈가 안정대책 불만 표시



‘대한양돈협회’가 ‘대한한돈협회’로 새롭게 태어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2월 22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제33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5년간 국내 양돈농가 대표조직으로 사용해오던 ‘대한양돈협회’를 ‘대한한돈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협회는 FTA 이후 무한경쟁시대 도래에 따른 생산·가공·판매의 일관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 중심의 협회에서 산업 주도 중심의 협회 이미지 개선을 위해 준비해왔다. 협회는 지난 71년 양돈친목회로 발족한 이후, 73년 (사)한국양돈협회, 78년 (사)대한양돈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의원들은 정부에서 돈가 안정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한 3,800원(박피 4,300원), 상한 5,000원(박피 5,500원)과 수입 돈육 할당관세 연장 등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의원들은 정부의 기준가격이 양돈농가와의 협의도 없이 진행이 되었으며, 정부의 물가 안정화라는 이유로 시장 개입으로 돈가는 생산비 이하로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관세 수입 돈육으로 인한 돈가 폭락은 돈가 안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할당관세 연장은 정부의 돈가 안정대책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며 할당관세 취소와 부정축산물 단속 강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11년 수지 결산 승인(안)과 '12년 사업 계획·수지 예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신임 이사에는 박권호 지부장(고성)과 박대열 지부장(거창), 정휘양 충남도사무총장(연기), 감사에는 심원형 대의원(홍성)이 선출됐다.

라이브뉴스 홍귀남 기자



양계

친환경 양계산물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가금학회, 5월 11일 전북대학교서



친환경 양계산물 생산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2012년 한국가금학회 춘계국제심포지엄이 5월 1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다.

한국가금학회(회장 한재용)는 지난 2월 9일 대한양계협회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춘계국제심포지엄 개최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금학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개최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연제를 △곡시둑 백신 및 유사 항곡시둑 리뷰 △클로스트리디움 항생제 대체제 △유럽 친환경 사양관리 사례 리뷰 △친환경 사양관리 방안 △친환경 양계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항생제 첨가금지 1년 후 리뷰 등으로 정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발표를 진행키로 했다.

가금학회는 또 전북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조건에 포함되는 교육점수 실적을 위한 교육필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축산경제신문 박정완기자

낙농 “우유 많이 마실수록 공부 잘해” 자조금, 중고생 630명 대상 ‘우유 섭취와 성적 연관 관계’ 연구 섭취량 늘면 영양균형 좋아져...성적·성격에도 영향

우유 및 유제품을 많이 마실수록 학업성적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강명희 교수)이 낙농자조금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유섭취와 학업성적, 체력과의 연관 관계’ 연구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333명과 고등학생 2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유 섭취가 많을수록 국어, 국사, 사회, 수학 등의 과목 성적이 유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유를 많이 섭취할수록 필요 영양소 섭취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들의 우유 및 유제품 섭취량에 따라 영양소 섭취를 영양섭취기준 중 평균 필요량 이하

로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가 많을수록 평균 필요량의 영양소 섭취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균형 잡힌 식사가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국어, 사회, 기술, 영어, 종합성적 등이 영양소 섭취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영양소 섭취를 골고루 하게 되고 영양소 섭취가 충분하면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유를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은 물론 학업성적도 좋아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우유가 성격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우유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성격척도 검사요인에서 우호성과 성실성, 성실성 요인에서 조직성과 책임감,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에서는 지적 호기심 등이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라며 “우유 섭취빈도가 성격도 우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에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가 전체적인 영양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유섭취를 늘리는 것이 영양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학업성적과 학업동기 및 성격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이희영기자



양록협회장 임기, 3년으로 연장 양록협 정총서 개정안 통과

양록협회장의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났다.

(사)한국양록협회(회장 강준수)는 지난 16일 대전 유성 레전드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 2년인 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기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협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2년의 임기는 짧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강준수 회장은 “타 생산자 단체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3년을 임기로 하고 있다. 실제 2년의 임기로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협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이어 열리 이사회에서는 현재 공석으로 있는 4명의 임원에 대해 부회장 2명에는 구권회, 오재덕씨, 이사 2명에는 최원규, 이근우씨가 추천됐다.

한편, 협회의 강준수 회장이 3월2일 부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록협회는 현 정유환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사)한국양봉협회, 제 17대 임원 · 지회장 상견례 개최

(사)한국양봉협회는 지난 2월 2일 (목) 제 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회

장 업무인수인계와 제 17대 임원 · 지회장 상견례를 개최하며 새 집행부의 시작을 열었다.

업무인수인계와 간소하게 치러진 이 · 취임식에서 조균환 회장은 “먼저 지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선되던 날 농가들이 주었던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정진토록 하겠다” 며 소감을 전했다.

상견례에는 제 17대 임원과 시 · 도 지회장이 간단한 자기소개로써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최규칠 사무총장이 직원소개와 협회 현황, 12년도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조균환 회장은 양봉산업의 최우선 당면과제와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임원, 지회장의 역할이 매우 크다. 임원, 지회장이 농가의 눈과 귀가 되어 주길 바라고, 나또한 항상 소통하는 자세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다” 며 열린 자세와 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우선 당면과제로는 양봉농가 면세유 지원방안, 벌꿀표시제도 정립, 벌꿀 정부인증제도 도입, 자조금 활성화, 정관 및 선거법 개정 등이 있었으며, 중장기 계획으로 꿀벌육종연구소 설립, 세계 양봉대회 정부행사로 격상, 양봉산업육성 및 지원법 제정, 벌꿀 규격기준 마련 등이 발표되었다.

자료제공 : 한국양봉협회